

회원사 동향

(주)트레인코리아, 트레인 100주년 기념해 맞이하여 2013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에너지절감 솔루션 선보여

고효율 HVAC 솔루션 및 서비스 글로벌 전문 기업인 트레인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6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COEX) 에서 열리는 “2013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 대전”에 참가한다.

이번 에너지 대전에 트레인은 건물의 수명연장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으로 고효율 트레인 CenTraVac 칠러 및 Tracer SC 자동 제어를 비롯하여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인 트레인 eView를 통하여 건물의 칠러 플랜트에서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전시장 Hall A, B-01에 선보이게 된다.

“트레인은 지난 100년의 기업 역사를 통해 고객의 지속 가능한 성장, 최고의 공조 솔루션을 통한 건물 사용자들의 쾌적함,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혁신적인 제품과 시스템,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에 전념해 왔다”며 “국내에서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고객군에게 이러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트레인 코리아 유 제인 사장은 말했다.

올해는 아래와 같이 업계의 역사를 바꾼 트레인의 주력 시스템의 기념의 해이기도 하다.

- 세계 최고 신뢰성, 효율, 안정성을 자랑하는 Trane 원심식 터보 냉동기 출시 75주년 기념의 해

트레인 터보 원심식 냉동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약 300대 이상 삼성전자 반도체 플랜트에 설치되어 월등한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검증 받았으며 최근 SK이노베이션 대전연구소에 설치된 트레인 냉동기는 개보수 이전과 비교하여 연간 약 6억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가 되었다.

- 다양한 건물의 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Trane Tracer 빌딩자동제어 시스템 개발의 35주년 기념의 해

트레인 Earthwise CenTraVac 냉동기는 세계 최고의 효율의 원심식 냉동기로 일반 원심식 냉동기보다 약 13.5% 효율증대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원심식냉동기 보다 약 4배 적은 가스배출 결과로 환경적인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냉동기 이다. 트레인 냉동기는 또한 미국환경청(EPA) 의 최고의 효율, 대형냉동기부문의

최저 배출의 성능을 인정받아 환경보호상을 수상하였다.

트레인 Earthwise 냉동기는 원심식을 비롯, 스크류, 스크롤 컴프레서를 비롯한 제품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10~3950 tons 에 이르는 다양한 용량으로 전세계 상업용 건물 및 산업용 시장에서 선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트레인의 Tracer SC 자동 제어시스템은 안정성, 스케일, 웹 기반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의 우수한 소프트웨어로 HVAC 를 비롯 조명제어까지 모든 일반 표준형 프로토콜에 적용 가능하다. 트레인 Tracer SC의 혁신적인 제어 애플리케이션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안정적인 제어시스템으로 모든 산업용, 교육, 헬스케어 및 상업용 건물등 다양한 건물 유형에 적용이 가능하다.

Tracer SC 는 BACNet 과 LonTalk 제어와 호환되며, 모든 설치 규모에 따라 스케일 변동 적용가능 하여 빌딩의 시스템의 사이즈와 복잡성에 대응가능하다.

트레인 eView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는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가 건물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고 에너지 절감을 실행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에 대해 일반 PC나 LCD 스크린에서 이용하며, 그래픽 화면으로 쉽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Trane eView 는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언제 어디서나 측정 및 리뷰 가능하도록 에너지 측정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데, 이러한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빌딩제어 시스템과도 호환되며, 그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에너지 절감요소의 기회를 제공한다.

트레인 창립 100주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trane.com/commercial/100years/>



(주)신일이앤씨 최문홍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주)신일이앤씨 최문홍 대표 이사가 18일 서울에서 열린 '2013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최문홍 대표이사는 30년간 국내외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링 산업발전에 공헌 하였으며, 특히 1997년 3월 신일이앤씨 설립 이후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 및 감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고, 이를 기반으로 건축물 및 산업체의 에너지진단, ESCO 사업,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인벤토리 구축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연구, 기술보급,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왔다.

2006년 12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산업체와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총 83,767toe(197,380 tco2/년)의 에너지 절감과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6,592toe(10,695 tco2/년)의 에너지 절감 개선방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추진중인 IT 기반 ESCO 시범사업 '자동차부품산업을 위한 EMS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절약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Networked BEMS 구축" 제안사업을 통하여 국가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흥하고 있다. 최문홍 대표이사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으로서 지역 에너지 절약 시스템구축과 보급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3 에너지대전 현장에서 바라본 금호에너지(주)

녹색기술 녹색기업 인증의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란 기업 브랜드를 넘어 이제는 EMS 전문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금호에너지(주)는 2013 에너지대전 행사(2013.10.16.~10.19) 현장에서 분주한 나흘을 보냈다. 올해로 설립 10년을 맞이하는 금호에너지(주)는 지금까지 에너지절약을 위한 각종 디바이스와 시스템 개발을 위해 꾸준한 R&D 투자활동으로 독자적인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 iEMS(지능형에너지관리시스템) 기반의 중앙관제센터를 개발,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금호에너지(주)의 첨단 전력수요관리시스템은 최대 전력관리장치,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디지털파워미터, 전력모니터링시스템, 조명제어시스템 등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전력IT 시스템 기반의 통합모델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와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다수의 구축 성공사례를 전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과 더불어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와 LED조명기기 분야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통합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금호에너지(주)의 주력 제품인 에너지통합관리장치(KHDC-30000)의 경우 전국 4,000여 개소 사업장에 설치되어 건물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있어 매년 550억 상당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화두가 되어 온 전력대란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구청 관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2013 에너지대전 코엑스 세미나룸에서는 BETC 사업의 일환으로 EMS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관리자, 에너지대전 참관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MS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날 금호에너지(주) 이승윤 팀장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수요관리 사업을 필두로 EMS 도입배경과 기술수준, 그리고 지능형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BEMS와 FEMS 사례를 소개하였다.

향후 금호에너지(주)는 대규모 전력서비스 산업인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사업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토탈 솔루션 개발에 오늘도 임직원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